

평양 남북정상회담 3일째... 남북, 백두산 정상에 오르다



평양정상회담 시를까인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천지에 오른 남북 정상, “백두산 관광시대 곧 올 것”

문 대통령-김 위원장, 한반도 평화 기원... 천지·백록 합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는 20일 백두산 천지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양 정상은 천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백두산 장군봉에 오전 9시33분께 도착해 담소를 시작했다. 김영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장과 북측 인 사들은 먼저 도착해 있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북한의 명산으로 꼽히는 백두산에 대해 자랑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며 “중국 쪽에는 천지를 못 내려간다. 우리는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또 천지를 둘러싼 봉우리를 가리키며 “백두산에는 사계절이 다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리성주 여사는 “7~8월이 제일 좋다”며 “민병초가 만발한다”고 보탤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민병초가 우리 집 마당에도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꽃보다는 해돋이가 장관”이라며 자랑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에 최남단에 있는 한라산을 거론하며 “한라산에도 백록담

이 있는데 천지처럼 물이 밑에서 솟지 않고 그냥 내린 비로만 돼 있어서 좀 기물 때는 마른다”고 설명했다.

리 여사는 “백두산에 전설이 많다. 용이 살다가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하늘의 선녀가 아흔이홉 명의 선녀가 물이 너무 맑아서 목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는데, 오늘은 또 두 분께서 오셔서 또 다른 전설이 생겼다”며 최초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 오른 데 대해 의미를 붙여 넣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에 새 역사의 모습을 담아서,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천지 물을 다 담아서 앞으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자 “제가 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좀 썼다”며 15만명의 평양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연설했던 여제를 언급했다. 그러자 리 여사는 “연설 정말 감동 깊게 들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오랜 소원이었던 백두산 방문을 거론하며 “한

창 백두산 봄(열풍)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많이 갔다”며 “치금도 많이 가고 있지만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았다. 반드시 나는 우리 땅으로 해서 오르게 될 것”이라며 “분단 이후에는 남쪽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는 그리움의 산이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동포들 와서 백두산을 봐야 할 것”이라며 “분단 이후에는 남쪽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는 그리움의 산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으니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는다”고 기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백두산 천지에 새 역사의 모습을 담아서,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천지 물을 다 담아서 앞으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 나가야겠다”고도 다짐했다.

남북정상 부부는 장군봉에서 정당

대표들을 비롯한 수행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천지로 내려가면 잘 안 보인다”며 “여기가 제일 천지 보기 좋은 곳인데 다 같이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은 사진을 자신이 찍겠다고도 제안하며 주변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뒤이어 남북 정상 부부는 천지로 내려가기 위해 향도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케이북카를 타고 천지로 향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물가로 이동해 천지에 손을 담겨보며 한껏 백두산의 경치를 느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성숙 여사가 준비해온 제주 한라산 백록담 물을 담은 생수병을 열어 절반은 천지에 뿌린 후 천지 물 일부를 담아 합수하며 이번 백두산 방문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문 대통령 일행은 2박3일 간의 방북 일정을 끝내고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장에서 20일 오후 3시30분께 출발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무사히 귀환했다.

/김진성기자

전은수 자광대표, ‘143타워복합개발로 전북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비전 제시’

“전북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적극 추진을”

전주 대한방직 터에 143초고층 빌딩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자광 전은수 대표는 20일 서울 아세아타워 대강당에서 열린 제11회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에 참석 전북의 미래성과 발전 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자광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는 김홍국 (주)하림그룹 회장(JB미래포럼 차기회장)과 이연택 전 새만금공공위원장,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을 비롯한 JB미래포럼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서 전 대표는 전북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를 이용한 전주 143층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자광의 기업스토리와 경영철학인 ‘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기업’의 비전을 소개하고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 대표는 “2023 새만금 세계캠

버리대회 성공개최와 새만금 개발에 맞추어 전북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향후에도 전주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전주시에 오래 머물고 관광객이 또 다시 찾을 것이며 이것은 결국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경제 확장으로 이어져 윤택한 삶이 보장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B미래포럼은 100여명의 전북출신 정·재계 대표 인사들로 구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자료와 투자 유치활동에 동참하려는 취지에서 설립 되었다. /송효철 기자

추석명절 전후 공직기강 특별점검

본청 및 도내 전 소속·출연기관, 14개 시군 대상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도민 불편사항 등 점검

전북도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10월 5일까지 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공직기강 해이와 공직비리를 사전 차단, 전북도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과 도민 편의시설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여 도민들이 안전하고 차분하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찰본은 도내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반 23명으로 편성하여 해당 권역의 시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연기관 등의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숙과 비노숙을 병행하여 복귀감찰은 물론 각종 재난대비 예방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공직감찰 기간 중에는 추석명절을 빙자한 금품 향응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

위, 사적용무로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행위,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지연처리 행위, 재난 재해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유지 실태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과 병행한다.

특히, 추석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친지, 친구들과 어울려 들뜬 분위기에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혈중알콜 농도가 0.05% 미만이라도 사고 등으로 적발되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해 가혹할 정도로 엄벌할 계획이다.

도 박해산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채정룡)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다.

지난 19일 채정룡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직자들과 지역 출신 시도의원들은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및 군산사랑상품권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살리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인들은 “내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대형마트 등의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전통시장을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채정룡 위원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추석명절을 맞이해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추석명절 무료 이용 가능 주차장 정보, 공공데이터에서 확인 가능

전북도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귀성객과 추석명절 여행객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주차장 공공데이터를 전라북도 공공데이터포털(opendata.gakr)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자료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 가능한 주차장 주소와 운영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정보를 지도 기반 서비스인 전라북도 공공생활정보지도(imap.jonbuk.gakr)에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북도는 공공생활정보지도와 앱을 통해 공영 주차장뿐만 아니라 무료와이파이, 비상대피시설 등 생활에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 ‘공간정보 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전주시가 도내 14개 시·군 중 공간정보 측량업무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지난 19일 전북도 주관으로 여의동 일원에서 진행된 ‘2018 전라북도 공간정보 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오는 11월 열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전북대표로 참가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시 여의동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지적과 공간정보 융·복합을 위한 측량기술을 습득하고, 지적공무원의 역량을 종합 평가하는 경진

대회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한중희 토지관리팀장과 이강식 회계과 주무관 최우지 원산구 민원봉사실 주무관으로 구성된 전주시대표팀은 9개 팀 27명이 참가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전자평판·토탈스테이션(Total station)을 활용한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 등) 및 측량성적결정의 정확도 등을 겨뤘다.

그 결과 전주시 대표팀은 최우수팀으로 선정돼 개인별 도지사 표창을 수여 받아 전북을 대표해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송효철 기자

추석연휴 교통안전 캠페인

전북도는 추석연휴기간 중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21일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하행)에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전북본부, 도로교통공단전북지부, 전북교통문화연

수원 등과 합동으로 2018년 추석연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친다.

도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음주운전 갖길운전 금지, 졸음사고 예방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운전 참여를 호소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